

## 95년도 제 11대 총여학생회 사업 계획

“8천이 자주적 여성으로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해 공동체 삶을 실천하며

간부다운 간부, 일대 혁신으로

2만과 함께 자주적 시대, 통일적 시대를 열어나가자.”

### 1. 대중사업의 내용과 방향

#### 1) 학우들과 총여는 하나. 직접통로를 열자.

“총여학생회는 무엇을 하는 지 모르겠다.” 심지어 총여가 있는 지조차 모르는 학우가 있는 가 하면 총여에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 하는 학우도 있습니다. 이제 총여학생회가 학우들에게 공개되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간부가 직접 발로 뛰려하고 있습니다.

#### 매주 수요일 도서관과 봉지에서 만남시다.

이제 학우가 찾아와서 이야기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부가 직접 찾아가 총여 사업을 함께 이야기 하고 학우들의 고민과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할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총여간부나 여학생회 간부가 도서관과 봉지 주변으로 직접 찾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정기적인 의견 조사운동

매월 한달에 한번씩 총여사업에 대한 이야기와 학우들의 직접적 고민을 담을 수 있는 설문지를 통하여 학우들의 의견을 담겠습니다. 벌써 3월달은 취업 복지사업 등의 내용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사내용과 학우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 기숙사 학우와 기숙사 소식지등과 함께 합니다.

기숙사 여학우들은 전체 학우수에 비하면 적은 수 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활공간을 학교에 두고 있는 학우인만큼 좀더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숙사 학우들과 함께 소식지등을 발행하며 기숙사내의 공동체 문화등 기숙사 여학우들의 삶의 고민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 2) 8천의 공동체적인 삶, 자주적 여성상, 남녀평등의 상을 함께 합의 하고자 합니다.

여성문제는 있다라고 모든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가 고래를 흔들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향은 이제 우리 여학우가 자신의 처지를 옳게 깨닫고 주인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며 단순히 여자의 권리만의 인정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남녀평등이며 이속에 2만의 공동체적인 삶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형식으로 학우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1달에 한번의 다양한 학술문화제**

그동안의 천편일률적인 강연회, 세미나등을 다양하게 만들어 단순한 강요,주입이 아니라 학우들과 함께 합의하고자 합니다.(4월 5월 9월 10월)

### **일상적 선전이나 정기적인 기획선전으로 다가서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학우들의 삶에 질곡으로 다가서는 것이 무엇인지 일상적인 선전작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안아 문제제기만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 **언어 정화 운동**

많은 여학우들이 ‘가시내가’ ‘여자애는 자고로’ 또는 음담패설등 언어를 자아 상실감등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 데 소극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언어정화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민족전남대의 학우들은 지성인답게 또한 공동체의 문화와 자신의 인격을 위하여 여기에 함께 해야될 것입니다.

### **출범식**

### **용봉고실**

### **자주여성 민주남성 선발대회**

이상의 커다란 대중사업도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2만과 함께 내용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속에서 펼쳐보고 싶습니다.

## **3)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자.**

### **1>성폭력의문제**

학내성폭력의 문제는 오히려 여학우보다 자치방범을 서왔었던 남학우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또한 선거 기간동안 학우들과 많은 공감을 가져왔다는 생각입니다. 남은 것은 앞으로 이문제를 학우들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 **용봉골 밤길 밝히기**

가로등 설치문제는 본부와 합의된 상태이며 단순히 가로등의 설치뿐아니라 학내 야간차량 통제나 방법의 실질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조사 중이며 앞으로 학우와 함께 마련해갈 것이며 본부에 강제해들어갈 것입니다.

### **성폭력 상담소, 전화**

성폭력상담소와 전화를 함께 고민중이며 구체적인 다른 대학의 상황을 조사중이며 여성의 전화와는 함께 할것을 합의한 상태입니다.

## **2>취업**

### **여학생 취업전문 자료 비치와 전문 상담**

많은 여학우들이 여학생취업들의 문제를 사회의 잘못된 관습과 여학생들의 취업정보의 부절을 꼽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안을 것입니다.

### **여대생취업문제를 연대사업으로 풀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자치선거가 있는 해로서 지방대생,특히나 여대생의 취업의 심각함을 알리고 여성정책으로 제시하며 학우들의 조그만한 서명작업을 통해서라도 강제해들어가겠습니다.

### **단대 여학생 선후배 간담회**

우리 여학우들은 또한 자기과의 선배들은 구체적으로 어떤일을 하는가 어떤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못합니다. 그러기에 작년 경영대 여학생회의 선후배 간담회를 전단위에 전파시키고자 합니다.

## **3>복지**

도서관 여학생휴게실 환경개선과 증설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 **4)시대를 이끄는 8천여학우와 함께 지자체, 통일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총여는 총학의 시녀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정치투쟁에서 학우들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사회와 떨어져 살 수 없듯이 정치와 연관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여학우의 삶과 직결된 문제 이기에 총여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투쟁과 그동안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학우들과 함께 합의된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 **1)지자체에 올바른 여성정책으로 우리 여학우의 취업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자.**

여성단체와 간담회나 토론회를 만들어가고 학우들과 함께 올바른 여성정책을 내오며 올바른 여성정책을 내오는 민주후보를 당선시키자.  
또한 학우들과 서명작업등을 펼쳐내며 여론화 시켜내자.

## **2)통일의 상을 밝히며 민족의 문제인 정신대 문제의 해결에 앞장선다.**

정신대 할머니의 아픔이 민족의 아픔이기에 또한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 있는 우리민족과 함께 한 아픔이기에 함께 해결의 모색을 찾아내고 또한 정신대 할머니 후원회등을 만들어 학우들과 함께 풀어낸다.

## **2.총여학생회 뿌리 강화**

### **1)간부 혁신**

그동안의 여학생회 간부의 모습을 평가하면서 이제는 학우속에 튼튼히 서기 위해서는 간부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고 입을 모아 침을 튀기며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학우를 잘 만나고 학우의 이야기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학생회 간부의 보다 변화된 모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2)용병여학우의 기본적인 삶의 공간 과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과여부강화 소모임건설의 이야기는 한두해 나왔던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중요성만이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방도를 내왔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 **과여부장 학교**

과여부장님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다른과의 모범을 전파할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 **연대 사업**

탁아소방문등 과여부와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등을 통하여 과여부의 실질적인 내용을 내오겠습니다.

### **3)소모임 건설**

지금 각 단여에 준비중인 소모임등을 지도하는 주체마련과 다양한 소모임의 내용으로 전문성을 담보하기위한 주체모임을 마련하며 소모임이 성원들만의 소모임이 아니라 이 내용을 학우와 함께 공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도를 내을것입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총여사업계획을 학우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학우들의 예정어린 관심과 비판으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제 11대 총여학생은 2만학우와 함께 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으로 새시대를 계획할것을 학우사랑의 뜨거운 가슴으로 약속드립니다.**